

2023.10.01.(주일) 민수기15:1-16 「약속의 땅, 우리 집」 이성은 목사님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3.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현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4.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일에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5.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준비할 것이요
6.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어 준비하고
7. 전제로 포도주 삼분의 일 힌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8.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9. 소제로 고운 가루 십분의 삼 에바에 기름 반 힌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10. 전제로 포도주 반 힌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11. 수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12.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13.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14.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15.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려하리라
16.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죽음의 독으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의 가루로 다 해독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가족 손에 이끌려 교회의 뜰을 처음 밟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들리고 약속의 땅에 거하는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몇몇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또 가정에 들호박 같은 우리 가족들 때문에 이 명절 독이 지금 또 한껏 올라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_^ 자,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독이 있어요!!”

명절에 독을 쏘는 가족 베스트 5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데 살면서 가장 늦게 오는 동서.

두 번째, 요리 솜씨 좋다고 칭찬만 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시누이.

세 번째,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막걸리 찾으시는 시아버지.

네 번째, 며느리는 친정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오라고 안달하시는 시어머니.(끄덕끄덕하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소파에 누워서 계속 쉬라고 말만 하는 남편.

그죠? 제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Q. 여러분은 독을 쓰는 사람입니까? 독을 맞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 이 해독 공동체에서 말씀의 가루를 뿐리면 모든 독이 다 사라지고 “평안입니다”가 될 줄 믿습니다.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평안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텔링 끝났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15장을 펼치니까 어제 14장과는 뭔가 연결이 안 되는 느낌입니다. 14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함으로 “결단코 이제 너희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렇게 끝난 14장인데 오늘 15장을 펼치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15장이 참 생뚱맞게 느껴지는 것은 14장까지는 사건 중심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제사의 규례가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목사님이 막 이렇게 더듬으시더라고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제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딱 15장만 그렇습니다. 16장을 여러분들 펼쳐보시면 다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큐티! QT가 뭐죠? Question Time[퀘스천 타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건과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규례의 말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그리고 고라의 반역. 그 반역과 반역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구원의 말씀. 또 장소적으로는 광야와 광야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속의 땅의 말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놓고 ‘15장은 잠깐 쉼표의 개념으로 쓰였다. 또 사건이 그냥 몰아치는 가운데 좀 컴다운하라고 하나님이 잠깐 넣어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본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항상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한가운데에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 죽을 것 같은 이 광야가 끝이 나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서 있는 그곳이 모두가 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환경으로 죽을 것 같

은 우리 집, 또 내 직장, 내 학교가 바로 나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많이 고민하다가 명절 특집으로 <약속의 땅, 우리집>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더 깊이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첫 번째,

1. 하나님께서 딱 맞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1-2절)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오늘 15장에서 등장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준다고 합니까? ‘내가 주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신 땅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할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큐티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지금 좋은 땅이라고 하신 분들은 큐티 하수^^;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좋은 땅, 나쁜 땅 없고 나에게 딱 맞는 땅입니다. 왜 웃으세요? 이거 너무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아멘! 아멘이 나오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 살게 할 이 약속의 땅은 살기 좋은 땅, 안 좋은 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팅하신 땅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좀 더 편한 곳, 그리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이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되어서 불평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잘먹고 잘사는 문제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나 ‘광야’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편안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결핍이 생기면 또 불평이 나옵니다. 인간은 탐욕의 무덤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항상 죽음이에요.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뭐죠?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좀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고통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내 육신의 불편함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젖과 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알코올 중독이신 아버지, 도박에~ 바람에~ 사고만 치는 남편,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아내, 게임 중독으로 방에 쳐박혀서 나오지 않는 아들.. 이 죽음의 독이 가득

한 이 들호박 같은 가족들 때문에 내가 “주님! 우리 집에 독이 있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면 바로 이러한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딱 맞게 나에게 주어 살게 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평생 광야 한가운데서 ‘이 광야 도대체 언제 끝나나?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나?’ 하면서 불평만 하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매번 하는 간증이지만 오늘 그래도 또 출애굽 2세대 분들-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게 벌써 33년 전의 일인데 지금 74의 연세로 아직까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방한켠에 누워서 시체처럼 천장만 보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TV를 틀어놨으니 지금 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있을 것 같아요. 저의 학창시절은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 대소변 갈아드리고, 또 밥을 떠먹여 드리고, 이렇게 밖에서 또 어머니는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일하시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 병수발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는 이 아버지 병수발의 감옥은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았어요. 요즘은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저는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분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야 되니까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어요. 얼마 전에는 토요일 밤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아빠가 온 침대에 대변을 쏟아놓았으니 빨리 와서 목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겠구나 투덜투덜하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이제 거의 뭐 몸을 못 움직이는 이렇게 식물인간이니까 제가 힘으로 들어서 목욕탕에서 화장실을 끌고 가서 이렇게 막 목욕을 시키는데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아버지 엉덩이가 화장실 바닥에 쓸리면서 깊은 상처가 확 생긴 거예요. 화장실에 막 피가 막 넘쳐나니까 제가 너무 당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일은 좀 일상..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그때 그날은 너무 상처가 깊이 패여가지고 제가 너무나 당황이 되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이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상처 한 번 나면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거를 ... 엉덩이 쪽이니까 그게 계속 바닥에 닿아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돌려야 되니까 이게 사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우리들교회에서 이 아버지 간증을 늘 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다 해석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참 벼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저희 아버지의 수고로 저희 집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 감옥같이 매여 있는 환경- 이 겸손의 환경- 때문에 인내의 훈련이 조금은 된 것 같아요. 인내 9단까지는 아니지만 한 인내 1단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일을 이제 10살 나이인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뛰어갔는데 그 피범벽이 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격해서 그런지 어쩐지 그것이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본능적으로 이 세상 무서운 줄 알고,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자동적으로 장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 같은 우리 집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하고 불평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또 불들어야 할 분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아버지가 있는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이것이 저희 아버지의 사명이었더라고요. ‘시체처럼 누워서 가족들을 힘들게만 하는 아버지가 무슨 사명이 있겠나’ 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수고해주셔서 저희 가족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이 다 우리들교회에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너무 자기 죄 잘 보시면서 목장에 잘 붙어가고 계세요. 왜 제가 ‘너무’ 자기 죄 잘 본다고 하냐면 진짜 안 보였거든요. 왜겠어요? 그 남편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세상에서 존경만 받고... 저희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존귀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어머니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장에 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동생 가족들도 왔거든요. 얼마 전에는 제 동생이 양육교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한 분을 양육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놀렐루야였습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Q. 지금 우리 집이 하나님이 딱 맞게 주어 살게 한 집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Q. 우리 집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수고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Q. 여러분은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두 번째,

2.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3-5절)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현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4.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일에 기름 사분의 일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5.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사분의 일 흰을 준비 할 것이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제사의 이름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요. 화제, 번제, 서원제, 낙현제, 정한 절기제, 또 4절 보니까 또 소제, 5절에 보니까 전제. 여러분 너무 복잡하시죠?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5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소화속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번소화속건 ‘번소 화장실 가면 속이 건강해져요.’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화제’입니다. 화제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읊었던 5가지 제사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화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전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사를 드리는 또 방법의 일종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서원제, 낙현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 화목제, 소제 모두 화제의 방식으로 소나 양이나 곡식을 태워서 드리고, 그 위에 또 전제의 방식으로 포도주를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내용이 1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제사를 4가지 특징으로 정리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 **약속의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특징 4가지**

(1) 나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3절에서 처음 언급된 제사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화제.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소제의 모든 제사를 다 불로 태우는 화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와 이 세상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화제’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차례를 지낸 가정들이 좀 있으실 텐데 명절 때 드리는 차례상의 핵심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 주체가 조상에게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주신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구원받아야 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제사는 ‘정성’이라는 행위로 더 쌓고 채우

고 남기는 제사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화제의 은혜로 더 비우고, 태우고, 없애는 제사입니다. 정성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형제들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다투는 제사이고, 화제로 드리는 제사는 형제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화해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나의 죄를 태우고 버리는 오늘과 같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매일 큐티와 목장 예배와 모든 공예배에서 날마다 나의 죽음의 독을 확인하고 그 독을 화제로 태우고 또 태워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 두 번째입니다.

(2) 향기가 나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각 절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향기’입니다. 각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모두 향기롭게 해라**’라고 주문하십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이 ‘향기’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진정시키는 냄새, 만족시키는 냄새’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제사는 하나님께서 진정이 되고, 하나님이 만족이 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사를 ‘흉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흉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해야 할 것은 나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만족시키는지를 한번 체크해봐야 합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흉향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나의 삶을 보고 진정이 되고 만족이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향기가 나면,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향기가 납니다. 또 밖에서는 향기가 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향기가 안 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둘중에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드리는 제사 세 번째는요,

(3)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제사의 규정이 복잡하게 나온 것 같지만 요약하자면, 제단 위에 모든 것을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던, 화목제를 드리던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에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위에 소제로 곡식을 올려놓고 또 전제로 포도주를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하고는 조금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곡식은 재물이고, 포도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끼고 아끼면서 쌓고 쌓았던 곡식의 재물! 아낌없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쾌락을 쫓아 달콤하게 누리고 싶은 이 포도주의 시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다 드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연인과 교제를 하면 시간과 돈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까? 하나도 안 아깝죠. 우리 주님께도 그렇게 내 전부를 드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노라.’ 사도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전제로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딜(거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100% 옳으십니다. 여러분,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작은 것이라도 숨기는 마음이 없이 모두 다 벌거벗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렇게 해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드리는 제사 마지막 특징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4) 나의 세월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는 어떻게 재배할 수 있습니까? 곡식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줘야 합니다. 포도주도 몇 개월의 시간 동안 포도를 발효시키고 숙성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인내와 수고를 거쳐야 수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그렇게 수확한 곡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단단한 곡식 알갱이는 잘 빨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에요. 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빨아서 가루로 만드는 간신의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 실패로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경제적 고난의 세월, 당장이라도 이혼밖에 답이 없어 보이는 부부 갈등의 세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녀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답답함의 세월, 육체적 질병으로 나 혼자만 싸워가야 하는 이 외로움의 세월.. 이러한 험악한 사건들을 통해서 단단한 내 자아가 깨지고 빨아지는 세월을 제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제사를 흠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예배는 나의 스토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간증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요즘 설교 때 노래하는 게 유행이라서 잠깐 해봤습니다. 그 다음 가사를 몰라서^^) 우리들교회 예배가 참으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매 예배 때마다 곡식의 고운 가루와 포도주의 간증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톡 치면 나오는 저의 스토리는 33년간 시체로 누워 계시는 아버지와의 인고의 세월, 17년간 불치병으로 평생 몸에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이 외로움의 세월. 이것이 저의 곡식이고 포도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장에 나아가실 때엔 한 주간의 나의 스토리를 제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오. 그리고 목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시고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장의 제사를 흠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아버지 사건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매여있는 이 광야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랬더니 너무나 성숙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같이 성숙하고, 나같이 착하고, 나같이 겸손한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들교회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은 우리들교회에 와서도 한 1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자라온 환경이 광야니까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서 늘 꿈꿨던 것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광야를 벗어나자 했습니다. 결혼이 저에게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자매가 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어요. 아까 목사님이 살짝 소개하셨지만 저희 아내는 저를 무척 좋아해요.^^ 제가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여튼! 저희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봐온 사이였는데 저는 사실 그 자매(지금 저희 아내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자매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렸었고요. 사실은 또 얼굴이 예쁘장해서 교회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또 듣기로는 부잣집의 외동딸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제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좀 있어요. 제가 ‘그런 레벨의 집안하고는 어려울 것 같아’ 혼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자매가 저를 좋아한다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일단은 “어? 어?” 하면서 “그래!”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완전 땡큐죠. 제가 그때 사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드디어 약속의 땅이 보이는구나! 이제 들어가는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슬쩍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대요. 사업을 하셔? 얼마나 부자일까? 이제 외동딸이면 뭐 상속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신혼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저희 집으로 이상한 우편물이 막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빨간 줄이 막 그어져 있는 채무 독촉장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아내 이름으로 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리 없어도 절대 빌리지는 않아요.^^; 얼마나 의롭게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 받아드니까 막 손이 벌벌 떨리면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장인어른의 사업은 일찍이 완전히 망했고 빚더미에 앉으셨가지고 변변한 집도 없이 사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집에 안 데리고 가시더라구요. 급한 채무들은 제가 갚아가면서 그런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건 뭐 약속의 땅이 아니라 더 깊은 광야로 내몰리는 느낌이었어요. 웃지 마세요. 저는 그때 너무 심각했어요.^^ 또 저희 아내는요. 이 외동으로 커서 그런지 어쩐지 이런 상황이 또 심각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을 회피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모습만 보이면서 그냥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하니까 제 속이 어떻겠어요? 온갖 생색을 내면서 자고 있던 아내를 불들고 “일어나 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얘기 좀 해봐!” 하면은 그냥 울어버려요. 그러면 또 대화가 안 되고. 이렇게 제가 혈기를 부리면서 신혼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교회에 왔어요. 2016년 1월 3일 새해 첫 주일 예배였는데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16절에 큰 두 광명체 해와 달을 설명해 주시는데 기가 막혔어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비춘다고 자랑하고 생색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에 제가 무릎을 끊었습니다.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때 한 목자님의 큐티 나눔을 예화로 읽어주셨는데, 루게릭병에 걸려서 7년간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있는 한 목자님이 이 병수발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날마다 한다는 그 나눔을 읽어주셨는데 그 얘기가 딱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 날 휘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1층 그 뒤쪽 귀퉁이에 앉아서 예배 끝날 때까지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 병수발 다 들고, 또 엄마 불쌍해서 엄마한테 특별히 못한 거 없이 다 말 잘 듣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사역자까지 되었는데 저는 진짜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책임한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능력한 장인어른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깊이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 결혼 당장 취소하고 싶다.’ 나만 피해자고, 나만 옳다고 여기는 이 자기 의로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가 그날 그 휘문에서 2016년 1월 3일 그날 그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라는 생각을 결혼 4년 차에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야 한가운데서도 말씀이 없으니까 그 모든 고난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난을 말씀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극복한 그 결론은 제가 사람들의 목을 조우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이 독을 말씀의 가루로, 화제로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정이 이제야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태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저희 아내가 “오빠, 많이 변했어”라는 말을 자주 해줍니다.

■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Q. 내가 화제로 태워야 할 내 안의 독은 무엇입니까?

Q.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로 드려야 할 나의 세월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Q. 나는 목장에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목장 가셔서 한 분 한 분씩 ‘향기 vs. 악취’를 좀 구별을 좀 해보세요.

마지막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세 번째로,

3.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14-15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례를 주시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4절에 걸쳐서 같은 내용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제사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타국인! 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출신성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모두가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고 했는데 그 잡족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국인들- 이 잡족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남의 나라의 신을 믿을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타국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이 더욱 커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이런 타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이런 타국인 같은 가족, 친척들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이 어려우신 게 많으셨어요. 차례상 앞에서 “나는 기독교니까 절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내 마음 안에서 ‘타인’으로 종지부 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빠는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누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큰아버지 예수 믿으면 내가 장을 지진다’라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왜 겠어요? 하나님은 그들도 약속의 땅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15절에서 좀 찾고자 합니다.

15.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시간이 없어서 뺨지 않고 하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대로에 달려 있습니다. 불신자 가족의 구원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어떠한 대로’에 달려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로 내 가족이 똑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2주 전 주일예배에서 세례 간증을 했던 한 청년의 간증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술, 오토바이, 패싸움, 폭력으로 방황하던 그 형제가 아버지가 우리들교회 온 후로 술을 끊고 목자가 되고, 어머니는 “평안입니다~” 수넴 여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

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대로가 우리 집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부모님이 바뀌어야 하고, 내 배우자가 바뀌어야 광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내가 화제로 태워지고 내가 소제로 빵아지고 내가 바뀌어야만!! 이 14장의 광야는 끝이 나고, 하루아침에 15장의 약속의 땅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릴게요.

Q. 내 마음속에 ‘타인’으로 종지부 찍은 가족(친척)은 누구입니까?

Q. 나의 ‘어떠한 대로’ 불신 가족을 전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Q. 불신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나의 ‘어떠한 대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맷겠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우리 집이 하나님께서 딱 맞게 주신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또 나의 전부를 화제로 태워드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지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일세”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제사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제목 알코올 중독이신 아버지, 도박에 바람에 사고를 치는 남편,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아내, 게임 중독으로 방에 쳐박혀서 나오지 않는 아들. 정말 들판박 같은 이 가족들 때문에 죽겠다고 도대체 이 광야는 언제 끝나는 것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반역했던 나의 불신앙을 주님이 오늘 화제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소제로 빵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내가 죽어지고, 태워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단단한 제 자아가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체처럼 누워만 계시는 아버지가 무슨 사명이 있느냐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인간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었고,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의 악랄한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딱 맞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너무나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 입술로 전하여진 이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 힘든 가족들 때문에 죽음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를 밟는 그 한 영혼에게 정말 복음이 되어서 이제는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의 곡식과 포도주의 제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드릴 것만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와 사업과 공부와 프로젝트와 그 아이디어 위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약]2023.10.01.(주일) 민수기15:1-16 「약속의 땅, 우리 집」

민수기 15장은 사건과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규례의 말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과 고라의 반역 사이에 끼어 있는 구원의 말씀, 장소적으로는 광야와 광야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속의 땅 말씀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본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한가운데에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 죽을 것 같은 광야가 끝나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서 있는 그곳이 모두가 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1. 하나님께서 딱 맞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1-2절)

- Q. 지금 우리 집이 하나님이 딱 맞게 주어 살게 한 집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 Q. 우리 집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수고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 Q. 여러분은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2.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3-5절)

■ 약속의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특징 4가지

- (1) 나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 (2) 향기가 나는 제사입니다.
- (3)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 (4) 나의 세월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 Q. 내가 화제로 태워야 할 내 안의 독은 무엇입니까?
- Q.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로 드려야 할 나의 세월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 Q. 나는 목장에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3.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14-15절)

- Q. 내 마음속에 '타인'으로 종지부 찍은 가족(친척)은 누구입니까?
- Q. 나의 '어떠한 대로' 불신 가족을 전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Q. 불신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나의 '어떠한 대로'는 무엇입니까?